



(주)GMP, 45개국 CEO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디지털 복합 후가공 기술 소개 및 '비전 2013' 제시

(주)GMP(대표이사 김양평)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경기도 파주 본사에서 세계 45개국 52명의 해외 고객사 CEO 초청 'GMP International Laminating & Digital Finishing Seminar 2012'를 김양평 회장의 주재로 개최하고, GMP의 신기술 및 신제품 소개와 향후 제품 전략을 제시했다.

자료 제공 | (주)GMP

부분광택·홀로그램 등 고부가가치 솔루션 공개

라미네이팅기계와 라미네이팅필름 및 디지털 피니싱 솔루션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GMP는 이번 신제품 발표 및 기술교육 세미나에서 POD 및 상업인쇄용 제품, 그리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포토북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이로써 향후에는 GMP의 독창적인 신기술을 전 세계 디지털 인쇄업계 및 출판업계, 그리고 다른 후가공 업계에 보급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

5일간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POD 및 오프셋인쇄의 장점을 부각시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로 고품격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광택, 홀로그램, 금은박 스텁핑 기술 및 은염 대

체 시스템 등 다양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피니싱 솔루션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 효과로 500만~700만 달러 수주 기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제품들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포토북 시장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공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경우, 큰 폭의 매출 신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MP의 제품설계기술, 생산기술 노하우를 통해 재료비를 절감하고 생산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품가격을 낮추고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 기간 중 신제품을 시연하는 김양평 회장



지엠피 국제세미나 밀리언달러클럽 시상식 전경



국제 세미나 전과정을 김양평 회장이 주관했다.

GMP의 제품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나석근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빠르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그에 따른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있다”면서 “새롭게 출시된 제품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바이어와의 유대강화와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만~700만 달러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GMP 비전 2013 발표’ · 밀리언달러 클럽 수상

세미나 3일차인 11월 28일 롯데호텔 벨뷰스위트룸에서는 미국 HP사, ACCO-GBC사를 비롯해 이스라엘 Noysystem, 러시아 Russcom, 네덜란드 하이델베르그사 등 45개국 CEO, 삼성, 금융 관계자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MP Vision 2013’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세계 유수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

품의 성공적인 론칭과 마케팅 구축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축하하며, 상호교류증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5일 간의 세미나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교육 훈련을 받은 각국 고객사의 CEO들이 모두 참석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 GMP의 위상을 한껏 실감케 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양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끊임없는 협조를 이뤄준 GMP 거래처에 대해 감사한다. GMP는 앞으로도 뛰어난 품질과 획기적인 기술로 고객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MP는 글로벌 프린터 업체인 HP의 골드파트너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오프셋인쇄기 업체와 ‘월드와이드 디스트리뷰터십’을 체결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 언급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신기술 개발로 경쟁업체를 리드하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원대한 ‘비전 2013’

을 천명했다.

아울러 GMP는 해외수상업체들도 발표했다. 밀리언달러클럽 부문에서 이스라엘, 독일, 러시아가 수상했는데, 이외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필리핀의 고객사들도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GMP는 2013년 2월 미국 네쉬빌에서 개최되는 DSCOOP8전시회에 HP 인디고의 골드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5월에는 아시아의 드루파로 불리는 ‘차이나 프린트 2013’도 참가해 신제품을 전시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GMP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GMP 브랜드 독자 유통망을 구축하고, 100여개국에서 수출실적으로 올리고 있다. 현재 68개의 국내외 발명특허와 38개의 실용신안특허를 보유하고 상용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절전형 발열체와 전기식 순간가열장치, 디스플레이 접착용 필름, 방수 라미네이팅 필름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새롭게 출시된 제품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바이어와의 유대강화와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만~700만 달러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엠피 국제세미나 참석자 단체사진